이	름	:																	
				아	낌	없	이		주	는		나	무						
	나	무		한		그	루	가		있	었	어	요	·	그	리	고		그
나	무	한	테		놀	러		오	는		귀	여	운		소	년	이		있
었	지	요	·	소	년	은		매	일		나	뭇	가	지	에		매	달	려
놀	기	도		하	고	,	열	매	를		따		먹	기	도		하	였	어
요	·	또		술	래	잡	기	도		하	고	,	나	무		그	늘	에	서
낮	잠	도		잤	지	요	·	소	년	은		나	무	를		사	랑	하	였
고		나	무	도		소	년	을		사	랑	했	어	요	·	둘	은		아
주		행	복	하	였	지	요	·											
	어	느	덧		소	년	은		청	년	이		되	었	고		나	무	도
크	게		자	랐	어	요	·	소	년	은		다	른		친	구	를		많

이		만	나	게		되	어		나	무	에	게	는		가	끔		놀	러
오	게		되	었	지	요	·	세	월	이		흘	러		소	년	은		어
른	이		되	었	어	요	·	그	는		나	무	를		찾	아	와		밑
동	만		남	겨		놓	고		나	무	를		베	어		팔	았	어	요
그	래	도		나	무	는		그	가		오	는		것	이		좋	았	고
행	복	하	였	지	요	·	노	인	이		된		소	년	은		다	시	
나	무	를		찾	아	왔	지	요	·	나	무	가		말	하	였	어	요	·
	“	나	는		너	에	게		줄		거	라	고	는		이	제		아
무	것	도		없	어	·	나	는		밑	동	만		남	았	거	든	·’	
	“	나	는		아	무	것	도		필	요	하	지		않	아	·	그	저
앉	아	서		편	히		쉴		곳	이	나		있	었	으	면		좋	겠
어	·”	노	인	이		말	하	였	어	요	·								

“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최고야. 자, 이리 와서 앉아.”

노인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
나무는 무척 행복하였답니다.